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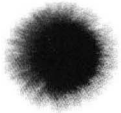
매번 새로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카사노바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랑에 순애보로 매달리는 인간형도 있다. 영화 마니아들의 성향도 이와 비슷하게 나뉜다. 금요일밤에 새로 개봉한 영화는 뭐든지 다 보는 개봉작형 마니아가 있는가 하면 신작에는 별 관심이 없고, 본 영화를 보고 또 보는 순애보형 영화 마니아도 있다. 전자가 재미 위주로(‘재미 위주’라 말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말은 아니다) 영화를 보는 이라면, 후자는 대체로 감상 위주로 영화를 본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영화에 기대하는 바가 큰 사람들이다. 이들은 한 편 영화에서 얻은 감동이나 느낀 바들을 끊임없이 자기 삶에 대입시켜보곤 한다.

젊은 시절 이야기라니 구미가 안 당길 수 없다.

영화 한 편 만들기까지 겪은 일 해온 막내 스태프의 체험 노트

무언가에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실제로 남녀 노소 안 가리고 특정 분야 일에 대해 열정을 품고 있는 이들은 수없이 많다. 폴 오스터처럼 뭔가에 열정을 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의 성공담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성공담들은 실용, 처세사에서, 자서전 에세이에서 수도 없이 봐왔다는 얘기들을 출판계에서 해주실지 모르겠다. 실제

담배 심부름 등 궂은 일, 제작과정의 ‘오프더 레코드’ 등 인간적 애환과 영화 한 편의 모든 것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
막내 스태프가 밑바닥서 겪은



전소연 프리랜서 영상번역가

나의 경우는 카사노바형 독자나 영화 마니아는 아니다. 그렇다고 순애보형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 좋았던 것을 다시 곱씹어보고 찾아보는 편이다. 독자된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다. 신간도서 코너를 훑어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는 익숙한 책, 내 코드에 맞는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읽는 그런 독자 중 하나다. 다독多讀은 다독이되, 좋아하는 류의 책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는 독자라고 보면 되겠다.

로 그런 인간극장류의 책들은 지천에 널려있는 게 사실이니까.

폴 오스터의 《빵 굽는 타자기-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는 ‘보고 또 보는’ 책 중 하나다. 아마도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 가장 많은 횟수를 거듭해 읽었던 책으로 손꼽힐지도 모르겠다.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하다. 현재 미국에서 매우 지명도가 높은 작가로 손꼽히는 폴 오스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자서전 형식으로 풀어 쓴 글이다. 언뜻 한 작가의 자서전, 수필처럼 느껴질 법도 한 이 책은 여느 자서전들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차이는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란 부제에서부터 드러난다. 글은 쓰고 싶어 죽겠는데,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무명작가가 막다른 골목에서도 닥치는 대로 글을 쓰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흥미롭게 좇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젊은 날’ 앞뒤 안 가리고 한 일에 열중했던 젊은 작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제안하고픈 ‘이런 책’ 기획거리를 소개하려면 ‘인간극장 류’의 이야기를 우선 꺼내 놓아야 하니 흥분부터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 기획은 앞뒤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뭔가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일단 관심을 가져 봐야 하는 기획이기 때문이다. 표현이 거칠었지 ‘닥치는 대로’ 뭔가에 빠져든다는 것은 돈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뛰어어드는 것을 말한다.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고, 영화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내 주변엔 그런 인물들-영화관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찾아다니는 인물들이 수없이 많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영화를 해보겠다는 친구들은 늘어만 간다. 그야말로 돈이며 미래며, 주변을 의식 않고 영화관에서 살다 죽어보겠다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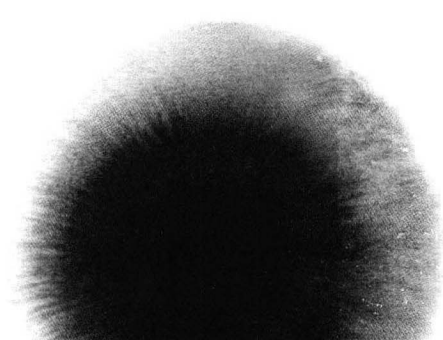
주변인을 팔아먹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A라는 친구는 스무 살 나이에 영화관에 뛰어 들었다. 일명 ‘딱깅이’라 불리는 연출부 막내로 들어갔다는 녀석을 직접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흥대 앞길 거리. 조명기라도 들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도 처참했다. 막내에게 주어진 최대 임무는 감독의 담배를 사러 가거나 감독이 앉을 의자부터 제대로 닦아놓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녀석은 안쓰럽게 인사를 건네는 내게 “이런 일을 하면서라도 한 편의 영화

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즐겁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흥미로웠던 것은 녀석의 영화 제작 기록 일지였다. 이 친구는 짬이 나는 대로 이 소소한 과정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있었다. 기록이라고 하니 흔히 스크립터가 기록해 둔 노트를 떠올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다른 기록이다. 노트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기록이면서 그 안에서 스태프로, 그것도 막내 스태프로 참여한 한 친구의 체험일기를 결합시킨 형태다. 이 친구가 영화관에 어떻게 뛰어 들었고, 이 세계에 들어와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제안받았고, 오늘은 어

이야기들이 스케치처럼 녹아들어난 글이다. 폴 오스터가 어떻게 밑바닥 인생에서 저명한 소설가가 되었는지를 풀어쓰면서 글쟁이가 되는 과정, 그의 작품들이 완성된 과정을 풀어 쓴 것과 비슷한 콘셉트다.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하고, 그곳에 출연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영화관에 뛰어 들어 볼까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만 간다. 그러나 그 과정, 현실을 들려주는 이야기는 흔치 않다. 잡지나 기사에 한 쪽지 정도 소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해 같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일하며



영 화 제 작 체 험 일 기

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촬영이 지연됐는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영화가 지연된 ‘오프 더 레코드’ 류의 자잘한 사건들까지 기록돼 있어 어떤 면에서는 영화잡지사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소스이기도 했다.

B라는 친구의 사연도 비슷하다. 영화홍보사에 근무하는 B는 자신이 홍보를 진행한 영화마다 한 권 이상의 노트를 갖고 있다. 그 영화 홍보를 맡으면서 누구를 만났고, 카피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는지, 그 해 내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이다. 그야말로 두 친구의 노트를 합치면 영화 한 편이 탄생하기까지의 솔직한 제작노트, 홍보노트가 될 것 같다. 물론 유명 감독들이 써놓는 ‘감독노트’와는 다른 실무자선의 고민이 담긴 ‘수필형 영화노트’라고 해야 적절한 것 같다.

이 영 화 이 령 게 나 왔 다

‘영화관 뛰어 들어 이렇게 영화 만들었다’ 등 제목의 책들

내가 제안하고픈 기획은 ‘이 영화 이렇게 나왔다’라는 기획이다. 물론 단순히 영화제작노트를 공개하라는 건 아니다. 앞서 말했던 한 인물의 인간극장류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영화 완성 과정의

닥치는 대로 젊은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의 수첩은 좋은 기획 소스가 될 것이다. ‘이 영화 이렇게 나왔다’ ‘나 영화관에 뛰어 들어 이렇게 영화 만들었다’, 혹은 ‘젊은 날 닥치는 대로 영화관 떠돌기’란 부제로 나오는 책. 유명 감독의 브랜드가 담긴 감독노트와는 다른 질감이 느껴지고, 특유의 땀까지 뻗 수필 형태의 영화노트다.

얼마 전 ‘올드보이’ 창작 과정이 소개된 책이 나온 바 있다. 기록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이런 개인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생각을 해봤다. 최근 들어 일반인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텔레비전, 책동네의 화제 거리가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실용서나 에세이에선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소개되는 걸로 안다. 누군가의 젊은 날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면서 영화 한 편에 대한 제작노트까지 되는 책. 젊은 날 닥치는 대로 영화를 만드는 친구를 찾아 나서든가 그런 친구를 찾아 기록을 해보길 적극 권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 나처럼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읽힐 수 있는 책이 탄생될 지도 모른다. **이문**